



2001년
2월 15일
제 30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시기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호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200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권 오 서 목사
강원도기독교연합회 회장
(춘천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북한인 사람이 강원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기독교연합회의 발족이 열려감에 따라 여러 곳에서 반가운 피려의 소식을 전해 받았습니 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결성된 기독교연합회인자 교우들의 기대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원가 강원도와 기독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크게 힘써 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느끼며,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 부담도 없지 않았습니 다. 강원도기독교연합회는 조그만 하나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연합회 회장인 저 역시 별반 세상에 놀라게 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강원도와 기독교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획이요 저희를 지게보는 많은 분들에게 대한 대답입니다.

목과 팔다리가 없이 동체(胴體)만으로 된 소상(塑像)을 '토로스'라 합니다. 토로스의 토로스를 보고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이 있다 할 때 이 토로스를만큼 강력하게 포용의지를 표출할 수

있으며, 팔이 있다 할 때 이 토로스만큼 강력하게 도약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가. 인체에 있어 팔라는 여분(餘分)의 것이다."

필자가 어떻게 느끼고 말했던 건에 저는 토로스의 토로스를 보며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목과 손과 발로 움직여야만 일이 성사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무엇, 뭔가 생계를 낼 만한 무엇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위주, 드러내지 행사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분주히 움직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용히 기도하며 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강원도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새해 계획을 말하려면 진하고 싶은 것 역시 이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3월 초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 모이게 됩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강원도기독교연합회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 하려고 합니다. 미국병사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두르고 한국병사들은 군번 목걸이를 두르고 베트남의 표족(苗族)병사들은 덩굴의 줄기로 만든 매달 목걸이를 하듯이 강원도 기독교연합회는 어떤 목걸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임이 3월 세 마나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삼손은 석조(石造)의 신전(神殿)을 무너뜨릴 만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괴력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며 삭발하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의 연인(戀人)데릴라에게 고백하고 맙니다. 온천원에 관한 데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잡아, 삼손은 괴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삼손의 비극은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에 있었습니 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방각했습니다. 삼손의 비극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 다. 강원도 기독교연합회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삼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동일한 목적지를 두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된 지역인 강원도가 남북관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변방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의 이러한 자리매김을 위해 강원도 기독교연합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돌아볼 것입니다.

도로를 빗자루로 쓰는 일이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아침 저녁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도에 지나친 기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린 아이들처럼 강원도기독교연합회는 서서히 자라는 조그만 도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성시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원입니다.



박 상 혁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감독
(원주태평침례교회 담임목사)

지난 날, 인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사건을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점점 예수 재림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들과 먼저 믿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

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전파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만이 말세지말에 덕처를 깨와 재난의 위기에서 또 삶의 각종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인생의 영혼의 때에 능히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하고 복음만이 인생들로 영혼의 때를 보장하게 합니다.

복음은 범죄한 인생들로 구원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게하는 영물뿐 하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 끝

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어서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14).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요 10:10). 이 복음이 계속해서 가정, 지역, 민족, 전 세계를 향하여 확산되어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원이며 이를 위해 기도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려 충성하는 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춘천에서 '전시기 전영역의 복음화운동, 기독교연합운동, 새로운도시 모범시민운동, 민족복음화 전략도시운동, 세계복음화 지원운동'이라는 목표

를 가지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한 것은 춘천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원임을 확인하며 그동안 이를 위해 애써오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운동을 교파를 초월하여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협력하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지면을 빌어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목표와 목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양신학원 운영 위한 선교금 전달

-동부연회 장로연합회, 8백만원 지원-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회장 유태희장로(춘천제일감리교회)는 2월 9일 감리회 본부내에 있는 서부연회를 방문하여 임기중 마한선 선교금 800만원을 북한선교를 위한 평양신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부회장 선우영장로(속초교회)와 안봉의장로(원주대광교회), 감사 고병열장로(홍천난민교회)가 대표로 참석하였고 서부연회 관리감독 임은택목사, 총무 이희곤목사와 함께 선교금 전달예배를 드리고 장기적인 북한선교방법을 협의했다.

이번에 전달한 선교금은 북한 평양시 소재 "평양신학원"의 재건 및 재학생 교육비로 쓰이게 되며 현재 12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평양신학원은 북한의 기독교지도자 양성기관으로 김장수감독(춘천신성교회)제임시 방문하여 "평양신학원"의 재건을 협의하였고 원주제일감리교회 김병익감독 제임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2001년 1월12일 원 감감독 임은택감독이 정부로부터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위한 선교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각 교회연합 심야기도집회 출발

-2월23일 9시30분 석사감리교회에서, 성시본부 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도모임(대표 허중구장로)은 춘천시민은 한 사람도 지옥까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부흥을 위해 2개월에 한번씩 모든 교회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금번 철야기도회를 시작으로 춘천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춘천시민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성인 성시화를 앞당기고자 하며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바란다. 첫번 금요일심야기도회는 오는 2월 23일 저녁 9시30분부터 석사감리교회(임태창목사)에서 열리며 2차 기도회는 4월중 순복음춘천교회 안현성전에서 가질 예정이다.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장 시공 정 목사



사 공 정 목사

교역자 연합회는 1월21일 오전11시 춘천중앙장로교회당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재정 및 사업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을 협의했으며 사업장(춘천중앙장로교회)을 제41대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사공 정 목사는 앞으로 300여개 교회 목회자들의 단합된 움직임으로 연합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시화를 위한 시민, 환경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연합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오예배로 연합하는 직장선교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김용배장로)는 지난1월30일 동부장로교회당에서 43개 직장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새해 첫번 정오예배를 드렸다. 김용배 연합회회장의 사회로 시정선교회장 민병업장로 대표기도, 임원들의 특별찬송이 드려졌으며 직장복음화에 최우선을 두는 직장인이 되자는 조충환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동부교회 어선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중식에 대한 김철수장로의 감사기도로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를 나눴다. 직장선교 정오예배는 2월27일(화) 낮12시 장소는 춘천동부장로교회 성전입니다.

"성령의 불길로 춘천을 인도하소서"



대표이사 신 중철
CES신선사태양광발전사업
춘천소양정공교의인수전사
춘천리모델링공사



주식회사 현정

토목·건축·공사업
춘천시 석사동 693-3
TEL.033)261-6661 / 262-6662

해외선교뉴스

이스라엘 & 이집트 카이로 & 인도캘커타

오늘 아침 신문에 이스라엘에 호전적인 세력이 감당된 소식과 함께 중동에 전운이 감도는 기사가 있었다. 10여년 전 중동에서는 제1회 정년 선교대회에 있었던 그 때 '심대해, 세계를 향해 가지'라는 주제아래 많은 청소년들이 열방에 헌신을 하였다. 그중 홍천의 한 여중생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헌신했는데 그 비전을 잃지 않고 준비해 오더니, 결국 2년 전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하고 있고 그에게서 온 편지를 통해서 참감람나무의 원가지 회복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할 때임을 확신한다.

... 2000년 12월 24일 아침 6시부터 9시 반까지 하이파의 바스 터미널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도 책자를 나누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자원 봉사자(메시나리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가 왔고, 저는 봉자에서, 책을 나누어주는 그들에게 책을 배대하고 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책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주어야 하는 일을 맡았습니...

... 군인들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데 볼 때는 오히려 책을 건네 주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한번은 장로 유대인 한 사람이 와서 책을 받아가서 읽었습니다.

그후 다른 장로 유대인들이 와서 축하하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바나바 형제는 우리 팀이 있는 곳을 알기 위해 차로 찾아 오는 그들을 따돌리고 잠시후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1500원 가량의 책을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과 충돌로 상황이 가난해진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도지를 잘 받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소망은 잃은 젊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살롬!!!!

(이스라엘선교사)

메인 1월부터 2월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국제 도서 전시회'가 있는데 이

때에 많은 국내, 외 출판사들이 책을 판매하고 홍보한다.

이슬람이나 기독교에 관계없이 치러지는 이 행사는 올해 1월24일부터 2월6일까지 열렸다. 실제로 매년 행사 때마다 성서공회와 기독교 출판사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했다.

성서공회는 전체 손님 중에 60%가 무슬림 손님이라고 한다. 이들은 성경, 예수 영화, 각종 신앙서적, 태일 등을 구입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명성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을 하루에 다 팔고 있다. 성서공회는 성경을 포함한 전 상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중동지역 사람들에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전년 성서공회에서는 최초로 이 행사 기간동안 TV광고 방송권이 났는데 중동지역에서 이러한 일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요즘 들어서 사역자들은 영적인 기도가 좋다고 입을 모으곤 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이집트 전역에 성경과 (예수)비디오가 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적년에 판매된 (예수)비디오만 해도 60만개인데, 이것은 중동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있다.

(이집트선교사)

몇일 전 인도의 모든 일간 신문에 가슴 아픈 기사가 실렸습니...

(1월25일날 현 인도 걸린당인 BJP(국우 힌두교도 정당)의 활동을 통해 캘커타 근교 라이가라라는 한 지역에서 약 2,200명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힌두교로 돌아와 거듭났다고 'born again as Hindus')고 하는 기사였습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쥐어 뜯고... 또 두렵고, 답답하고...

이런 이 사건의 여파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힌두교로 되돌아 갈 것인지 또 어떠한 필박들이 일어날 것인지...

(인도캘커타에서 이성이 목사)

교회건축 위해 계란 판매

춘천갈릴리교교회(최영주 담임목사) 여성교회에서는 건축헌금 마련을 위해 계란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란은 최목사님 "영원왕관"이며 좋은 품질로서 저희 여성교회가 직접 배달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믿을 수 있습니다.

◎ 가격비교(1판기준): 시중 마트는 평균 4천원

갈릴리교의 영양관은 3천5백원에 판매

◎ 주문 및 문의처: 033)256-5922

◎ 춘천시 신사동 309-3 4/4 갈릴리교교회

유머 에피소드

사모님을 기절시킨 이메일

강원도에서는 사람이 김씨가 부산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썼다. 그런데 그날 심술로 아내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쳐서 메일이 엉뚱하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발송되고 말았다. 목사님 사모님은 이메일을 받아 읽고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은 회복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써 있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소. 그런데 이 아내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

성시만 평



직장선교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사를 기원합니다.



김 오 배 회장
춘천직장선교연합회 회장
강원도교육청 선교장로
(춘천소망성교회 집로)

회원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모두 함께 참으로 좋은 하나님을 선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 직장마다 내려 주실 성령의 단비를 경이 받아 원하시는 만큼 자라고 열매맺기를 소원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회원들에게 기사와 이직과 표징의 간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100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의 터 위에 쏘아내고 다듬은 '춘천직장선교장교회'라는 주춧돌을 세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들은 일꾼이요 종신임을 자각하지 아니할 수 없

습니다.

느그시는 바와 같이 한계 많은 고인들의 믿음은 안일하고 나태하여 이기적이어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비록 작은 수고와 노력이었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직장 안에서 기도와 예배와 모인고 봉사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았고 직장을 위해서 남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과 우리도 선교인이 되어 가고 있음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춘천직장선교장교회연합회는 10여년 전 몇몇 직장인의 믿음 있는 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연합하게 된 것으로 그 동안 수많은 분들이 직장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받고 직장에서 인정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직장 선교회의 사명감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인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함 모두에게 삼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은 흠 없고 순진하며 모범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섬기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기 힘든 이 일을 직장 선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면 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새봄이 우리의 길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추위로 움츠러들던 게으름도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춘천에 성시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열매와 천대와 따돌림은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도 꽃피고 결실될 것을 또한 확실히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게 지워진 점으로 생각하던 의무장에서 시작한 직분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작은 수고와 노력에 쌓여서 모듬이들이 되어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청량 직장은 모두가 바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회원은 더 바빠 수 밖에 없을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뿐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선교 반열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해에 이어 금년에는 직장인 정오 예배와 선교대회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춘천의 모든 직장 안에 직장 선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기도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 춘천성시화가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이제

돈돈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나태함에 이어 금년에는 직장인 정오 예배와 선교대회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춘천의 모든 직장 안에 직장 선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기도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 춘천성시화가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이제

돈돈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나태함에 이어 금년에는 직장인 정오 예배와 선교대회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춘천의 모든 직장 안에 직장 선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기도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 춘천성시화가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이제

돈돈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나태함에 이어 금년에는 직장인 정오 예배와 선교대회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춘천의 모든 직장 안에 직장 선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기도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 춘천성시화가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이제

청찬과 명성으로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역전의 삶II (습 3:18-20, 삼상 2:8)

또한 삼승 나로 하나없는 찬바람이 생생 부는데 홀로 앉아서 칠아기도 하는데 거지가 외 옷을 많이 입고 버리지 못하는가를 그대 알았다.

우리 자녀도 새벽마다 일찍 나가니 내가 웃을 그렇게 많이 입고 동동하러 보이는 것을 몰랐으니 말이다. 심판이 곧 찾아야 하든 새벽에 들어오는 나를 보고 누가 그렇게 동동하냐 하고 가까이 보니... 얼마나 할 정도였으니 누구든지 체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남은 자에게 전능하신 주의 왕 하나님을 함께 깨서 원수를 찾아내고 화를 두려워 할 때 내 손을 내려 드리지 말며 그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오. 거룩한 사람이 사탄의 괴물을 하는 이를 다 벌하고 지는자를 구원하며 쫓겨난자를 모으고 새 세상에 수확하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의 사모님들을 돌리길 내 너희로 천하 만민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죽어가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한자로 부하게도 높이기도 낮이기도 가난한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자를 거름터에서 드스 키우실때 함께 가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분이 칭찬하여 명성을 주시는데 감히 누가 당하랴.

다윗은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 성령의 강동이 되어 일개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이런 다윗을 생각할 때 감탄이 절로 나오며 그 뿌리에서 열국을 다스릴 구원자가 탄생하지 않았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을 죽기까지 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그의 이름이면 마귀사탄도 떨며 나가니 거기서인 귀신들린자로 예수님을 만나 지옥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전이 삶을 누리고 열두 해로 열우중으로 고생한 여인도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상속을 받는 기쁨이 되지 않았는가?

요셉은 종으로 팔렸으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더니 애굽의 국부총리로 또한 나라와 가정을 구하는 종신이요 효자로 모두트에게는 중증문지기로서 민족의 운명을 하나

남게 걸었더니 그 또한 한만이 누리던 국부총리로써 역전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삼고도 하나님의 역전이 삶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영광의 위에 앉은자를 다 말할 수 없다.

우리 아들들은 학교에 갈 때면 단 한 수기도를 받고 동교했다.

그때 하나님은 서울대학을 보내라고 했지만 성격도 격정적인 차, 학교에서 미술을 하면 보내준다고 했으나 공무원의 봉급으로 주님 섬기는 일 외에 생각조차도 못하여 포기했었는데 이제와서 서울대 박사코스도 것도 생활비, 학비 전액 받으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가?

이렇게 예수님만 만나고 영접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두는 역전의 삶이요, 거룩행의 청사진이 아닌 우주의 주인이 칭찬을 하며 명성을 주는 축복을 누리시 감히 막다른 요충지에 구조조항한 믿음이 가서는 때에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가?

이제 분이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좋으니 분을 어떻게 만나며 저 체 높이고 명성있는 분과 어떻게 구역시구가 되어 서로 교제하며 자녀를 양육을 도울때도 의논하며 가족보다 아가도 복을 받고자 할(88:32) 독생자 아들들을 제물로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했으니)있는 것 없는 것 나뉘어 건강을 빌어주며 (병든 남편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을 걱정해주시겠는가?(구역에 대학교수, 의원, 교육 담당자, 의사, 귀족)들과 같이 참으로 거름터에서 들어 귀족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가?

우리 교회에도 매슬폴이 언제 나오는 줄도 모르고 누워서 혼자모는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 이제 절묘하며 이 기쁜 복음을 전한다고 참으로 역전이 삶을 누리며 행복(하나님의 자녀됨) 자리에 앉는 축복을 누리다.

이처럼 기막힌 비밀을 나만 누리며 알 것이 아니라,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알리시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다윗과 같이 기쁨 부른자를 대적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소원 성취하여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통쾌한 역전의 삶을 살다.

이 은 주 목사 (춘천성시교회 담임)

1월 성시선교 후원 명단

개 인(38명)

이병만 김현철 안장숙 황순옥 허순영 안미애 정우영 정기은 최상호 안희원 임정근 김진현 홍순복 최경용 이준택 오홍수 홍성은 정용현 황병현 박동환 정찬복 김기태 민병철 장기영 엄필남 윤준호 유태희 김갑호 조장국 정석선 김영명 이학규 정은실 한순수 유근창 조남진 조충환 이윤호

교 회(8개교회)

순복음춘천교회(김주찬 목사)
춘천석사교회(임택장 목사)
춘천소망성교회(이원호 목사)

춘천늘사랑교회(정재호 목사)
춘천양문순복음교회(김길홍 목사)
춘천일신교회(이은주 목사)
춘천사랑중앙교회(최상도 목사)
춘천열린교회(신성관 목사)

단체(22단체)

이윤규(영광찬의원)
이관호/윤영선(달로아임)
조은혜/기정희(메도병원선교팀)

평생후원(1명)

이병만

성스러운 하나님의 도시, 성시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문서선교를 위해 주님의 명성에 순종하며 뜻이 있는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시후원계좌: (예금주-조남진)

농협 203-02-280238 우체국 200022-02-129749

조흥은행 716-01-001389 국민은행 301-01-0585-522

계좌입금 625-20-265119

건강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은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 은총,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나 노획한 인간은 몸에서 병들과 허약하여 인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지어주신 마음이 욕심으로 병들어 이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형제의 눈치에 따라 작은 잘못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인간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좁은 마음이 넓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병들과 허약한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육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하시다면 이처럼 허약한 몸이라도 주님의 강한 도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 모두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소서.

김순실 자매 (춘천석사교회 제11회 헌신부)

